

4» '성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5차 회의



6» 문화복지 시설 일부 업체 할인혜택 철회



201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시행 안내

4학년, 졸업유예자 : 2015.08.04.(화) 10:30~17:00
3학년 : 2015.08.05.(수) 10:30~17:00
다전공자 : 2015.08.10.(월) 10:30~17:00
전학년 : 2015.08.11.(화) 10:30~17:00 / 캠퍼스 간 교차수강, 재수강 신청 가능

2학년 : 2015.08.06.(목) 10:30~17:00
1학년 : 2015.08.07.(금) 10:30~17:00



서울캠 대운동장, 알아보시겠어요?

서울캠퍼스 SPACE21 사업에 따라 대운동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대운동장에 존재했던 스탠드와 본부석, 농구코트 등은 모두 철거된 상황이다. 현재 대운동장 주변은 펜스로 가려져있어, 앞으로 달라질 풍경이 궁금해진다

Newsmaker

유니버시아드 첫 수영종목 메달
유현지 (스포츠지도학 2013) 양



“꿀등이라고 생각, 이 악물어 메달 목에 걸었다”

장연수 기자 ys0501994@khu.ac.kr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12일 간의 치열한 경쟁을 뒤로 한 채 지난 14일 막을 내렸다. 홈그라운드인 이점을 살려 우리나라는 금메달 47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29개라는 성적으로 하계 유니버시아드 참가 이래 처음으로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수많은 메달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수영’ 42개 종목 중 유일하게 거둔 메달이다. 배영 50m 부문에 출전한 우리학교 유현지(스포츠지도학 2013) 양이 그 주인공이다.

자신이 ‘꿀등’이라는 생각으로 결승전에 오른 유 양은 예선보다 더 집중했다. 집중력은 오히려 경기에 대한 불필요한 긴장을 떨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덕분에 그는 홍콩의 아우 하오이 순 스테파니(AU Hoi Shun Stephanie) 선수와 함께 배영 50m 공동 은메달을 거머쥔 수 있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다른 선수들과 달리, 유 양은 사실 ‘일반 학생’ 신분이다. 선수 신분이 아닌 일반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를 받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어려운 점은 없을까. 이에 대해 유 양은 “평소에도 그래왔다는 말과 함께 ‘학점이 잘 나오지 않는 것 외에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며 털어놓았다. 유 양은 현재 학교 체육부가 아닌 경남체육회 소속으로 있으며, 유니버시아드 역시 경남체육회 소속으로 출전했다.

자신이 ‘꿀등’이라는 생각으로 결승전에 오른 유 양은 예선보다 더 경기에 집중했다

메달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녀는 “이번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첫 세계대회 출전”이라며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메달을 따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예선 기록이 결승전 참가인원 8명의 선수 중 가장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그녀는 결승전에 올라갈 8명의 선수를 선발하는 준결승전에서 미국 선수와 공동 8위를 기록해 재경기의 일종인 ‘스윙-오프’를 치렀다. 유현지 양은 이 재경기에서 미국 선수를 0.3초 차이로 제쳐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었다. 당시를 돌이켜보며 그녀는 “알고 보니 그 선수가 배영 100m 은메달을 따낸 선수였다. 그 당시에는 몰랐다”며 “오히려 지금 그 때의 경기영상을 보게 되면 더 긴장이 된다”라고 말했다.

유 양이 수영을 접한 것은 5살 때다. 이후 9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 현재까지 수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유 양은 “사실 초등학교 이후로 수영을 계속하게 될 줄은 몰랐다”라며 “지금은 수영 없는 내 삶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수영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수영 선수로서 유 양의 목표는 무엇일까. 유 양은 “제 기록을 갱신하고 싶다”라며 “이번 유니버시아드에서 은메달을 땀지만 사실 결승전 기록보다 스윙-오프 때 기록이 더 좋았어요. 하지만 스윙-오프는 비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 기록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제 목표예요”라고 말했다. ‘스윙-오프’를 넘어 유 양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기록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메르스’ 강동 경희대병원 13일 재개원

경영관리실, “간접손실 포함하면 피해액은 300억 원 이상 예상”

강동경희대병원 재개원

이시은 기자 dltids77@khu.ac.kr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의 76번째 환자 발생으로 지난달 19일 문을 닫았던 강동경희대병원이 지난 13일 재개원했다. 투석실 격리대상자 97명에 대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자, 보건당국이 11일 집중관리병원 지정을 해제한 데 이은 조치다. 전면폐쇄 후 25일만이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지난달 6일 76번째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뒤 다음날 응급실을 긴급 폐쇄했다. 이후

병원 내에서 혈액 투석을 받던 메르스 의심환자가 165번째 양성 판정을 받아 지난달 19일 혈액 투석실을 제외한 전 병원을 폐쇄했다. 가장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던 혈액 투석실 환자 90명과 의사 2명, 간호사 5명은 코호트격리(특정 질병 발병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동일 집단’으로 묶어 통제로 격리하는 조치)됐다.

의료진 7명은 격리된 후에도 외부 의료진과 함께 쉬지 않고 투석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격리대상자였던 323명의 교직원들이 지난 11일 전원 복귀를 마치면서 원내업무 또한 정상화됐다.

그간 병원은 ‘메르스 여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환자 발생 시점부터 매주 1회 인공신장실을 포함한 병원 건물 전체에 소독 작업을 시행했으며, 재개원을 앞두고 있던 지난 9일에는 전체 환경청소를 실시했다. 또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응급실과 투석실의 경우 ‘공기밀균 공조시스템’을 도입, 유해한 공기와 각종 병원균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폐쇄에 따른 피해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 경영관리실 신재구 팀장은 “6월 및 7월의 직접적인 손실 뿐 아니라 이후 진료실적 회복까지 약 3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할 예정”이라며 “타 병원보다 매우 큰 규모”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현재 정부에 추경예산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원내 예산통제 및 외래진료시간 확대 등 각종 대책을 통해 손실을 조기에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회복조짐 또한 좋다. 병원 측은 “재개원 2주차 기준 메르스 전 대비 외래환자는 50%, 입원환자는 병동 순차적 오픈으로 35% 정도 회복됐다”며 “2주차에 들어 회복 추세가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보다 큰 진료수익 공백으로 인해 완전한 회복까지는 당분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인들의 시인, 《김수영 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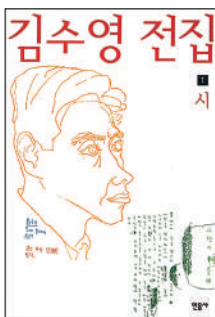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㉞

이영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건 몰라도, 시를 쓰고 읽는 일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범접하지 못할 대단한 기록을 가진 시의 공화국이다. 매년 몇 백여 권의 시집이 출판되고 20세기를 통틀어 백만 권 넘게 판매된 시집이 여러 권에 달했던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 말고는 없다. 현재의 지구 문명을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영어권에서도, 같은

문명권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시집이 이렇게 활발하게 출판되고 읽히는 일은 없었다.

한국에서 시인은 존경받는 예술



예술가란 현재의 삶을 넘어선 새로운 삶이 어떤 것 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가이자 정신적 스승이다.

이 특별한 시의 공화국에서,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인, 특히 시의 길에 갓 들어선 젊은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인이 있다. 김수영이 바로 그다.

시인이 작고한 이후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김수영 시인의 영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젊은 시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수영의 시에 어떤 마력이 있어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일까?

김수영은 존경받는 시인을 넘어

한국 지성의 표상이다. 김수영은 예술가와 지식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모범을 보여준다. 김수영이 생각하는 예술가란 인간이 가진 꿈과 감정을 그려내어 현재의 삶을 넘어선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식인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에 대해 김수영만큼 선명한 원칙을 제시한 한국의 지식인은 없었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특별기고

젊은 세대들이 왜 ‘복고 문화’에 끌리는가?

서상훈 (문화평론가) >> 7면



시선

사설

‘포스트 메르스’
경희가 함께 헤쳐가자

메르스 공포 속에 문을 닫았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 지난 13일 재개원했다. 최초 확진자 발생 36일 만이 자 병원 전면 폐쇄조치 이후 25일 만의 재개원이다. 당 초 강동경희대병원은 6월 6일에 76번 확진자가 발생한 후 하루 뒤인 7일에 응급실을 긴급 폐쇄조치한 데 이 어, 6월 18일 165번 확진자가 인공신장실에서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게 되자 내부 논의를 거쳐 하루 뒤인 19 일에 전격적인 병원 전면 폐쇄조치에 돌입한 바 있다. 이 같은 강동경희대병원의 조치는 의료계 안팎으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강동경희대병원은 전면 폐쇄 이후에도 부단한 노력 을 통해 추가 확진자 발생 없이 사태를 마무리시키며 호 평을 받았다. 매 주 건물 전체 소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확진자가 발생했던 응급실과 인공신장실에는 3중 필터가 장착된 공기멸균 공조시스템을 설치해 실내공기 정화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혈액투석환자 집단을 메르스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한 것은 의료계 일각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로 평가될 만큼 커다란 성과였다.

강동경희대병원의 이번 메르스 대응 조치는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병원 측이 입은 직, 간접적인 손실에 규모는 300억 원 가량에 이른다 는 후문이다. 때문에 ‘이윤창출’이라는 기업논리를 넘 어 환자와 지역사회를 최우선가치로 두었던 강동경희 대병원의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은, 작게는 교육, 연구, 사회기여라는 대학의 3대 기능을 공유하는 대학병원 으로서 ‘사회기여’를 몸소 실천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크게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란 과연 어떤 의 미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 었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주지하듯,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 한 투자이며, 의료대상을 향한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 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의 가치가 우리 사회와 의료계 전반에 내재화되어 있을수록,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국적 비상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치 속에 강동경희대병원엔 그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한 셈이다.

이제 전국을 강타했던 메르스의 기세는 한 풀 잦아 드는 모양새다. 메르스 여파로 큰 상흔을 입은 우리 사 회는, 아마도 메르스 종식 이후엔 이번 사태를 서둘러 잊어버리려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 우리 경희대학교 구성원들은 강동경희대병원이 처 한 현재의 상황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경희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메르스 사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한 강동경희대병원 이 맞닥뜨리게 된 불가피했던 ‘손 실’을 온전히 병원 측의 짐으로만 방치하는 것은 온당 한 공동체적 태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강동경희대병원의 의료진 및 직원사회가 똘똘 뭉쳐 돌파했다면, 이제는 모든 경희대학교 구성원이 합심하 여 ‘메르스’ 이후를 헤쳐 나가야 한다. 격려나 응원의 목소리는 물론이거니와, 현실적인 재정 손실분에 대한 대학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시점이다. 경희대학교는 강동경희대병원의 ‘지역공동 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신규우편번호,
서울캠 ‘02447’ 국제캠 ‘17104’

미디어 여론동향 2015. 7. 13 ~ 7. 26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경희대병원이 내원객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오전 진료를 30분 앞당기는 조기 진료에 들어갔다. (“30분 일찍 진료받으세요” 경희대병원 조기 진료 실시/메디컬타임즈, 2015.7.17) 전 진료과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기 진료로 경희대병원은 9시부터 시작했던 외래 진료를 8시 30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김진식 병원장은 “동대문구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모든 교직원 이 합심해 메르스를 막은 국민 안심병원으로의 자부심이 대단하다”며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지역주민의 격려와 응원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하는 병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대병원은 토요일 오전 외래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SPACE21 사업 ‘특별기구’ 설치
건물과 함께 ‘신뢰’ 구축하는 계기 되길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하루가 다르게 서울캠퍼스(서울캠) 대운동장 주변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교육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방학부터 시작된 SPACE21 사업 공사가 한창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입학하기 오래 전부터 ‘이야기’와 ‘그림’으로 논의됐던 이 사업이 실제 모습이 되자, 느끼는 감정은 다양하다. 낯설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다. 무엇보다도 공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마음이 크다.

그동안 SPACE21 사업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고갔다. 안전문제와 방음·방진 문제는 대규모 공사에 따른 당연한 이야기였다. 특히 최근에는 ‘공사비용 확보’를 두고 구성원의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서울캠 SPACE21 공사비용으로 책정된 약 800억 원 중 기채 500억 원 상환계획과 재정사업을 통한 자금 충당계획을 두고 총학생회(총학)는 대학본부 측이 이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는 SPACE21 공사비용 마련 계획을 바라보는 총학과 대학본부의 견해차도 분명 있었지만, 갈등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결국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신뢰라는 것은 단순히 긴 시간동안 이야기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총학이 제시한 ‘SPACE21 논의를 위한 8가지 제안’에 대해 대학본부와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제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특별기구’다. 양 측은 대학본부와 학생 측 인사가 참여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SPACE21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를 통해 기체 상환계획을 비롯한, 안전 문제, 대운동장 사용문제, 강의수와 교육여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결국 ‘누구로 구성된 특별기구’보다
‘무엇을 하는 특별기구’가 더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대학본부와 총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수많은 회의체를 갖고도 소통이나 신뢰의 문제가 매번 불거지는 것처럼, 결국 ‘누구로 구성된 특별기구’보다 ‘무엇을 하는 특별기구’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회의체의 형태를 정한 이번 합의를 넘어 구성원의 편의와 권리를 위한 회의 내용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ACE21 사업은 우리학교의 숙원사업이다. 이제 SPACE21 사업은 ‘첫 삽’을 뚫은 뿐이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앞으로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특별기구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구성원 간 신뢰를 건설하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

대학 기숙사비 카드 납부 추진,
그렇다면 등록금은?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교육부가 지난 20일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 분할납부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수는 370,568명이다. 이렇게나 많은 기숙사 거주 학생들이 카드납부를 통해 결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니 이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기숙사비 뿐만 아니라 카드납부 방식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또 있다. 바로 등록금이다. 지난해 전국 407개 대학 중 148개 학교만이 신용카드를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전국에 있는 대학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37%에 불과하다. 등록금 카드납부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뜻이다.

대학은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만큼 손해가 발생하고, 결국 그 액수만큼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카드납부를 꺼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등록금 납부 시 카드결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발의돼 아직도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안’처럼 언제 통과가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교육부가 이번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추진한 이유를 살펴보자.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에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기숙사비 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못 본 채 한다면 이는 ‘뽕수’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 기준 전국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연 평균 등록금은 667만 원이다. 지난해 사립대학 기준 한 학기당 기숙사비 1인 평균 납부액은 약 116만원이다. 연 평균 232만 원으로 등록금에 3분의 1 수준이다. 신용회복위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신용회복위에서 채무 조정에 들어간 20대가 약 4만 2300명이었고 대부분이 대학생이었다. 채 사회에 나가기 전에 ‘빚쟁이’로 불리는 풍경은, 가장 절박한 사안이 정부의 등록금 관련 정책이라는 아주 많은 지표 중 하나일 뿐이다.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이 생생내기가 아닌 정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면 기숙사비 뿐만 아니라 등록금 납부에도 카드 납부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 기숙사비는 카드납부로 결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면서 등록금 카드납부 문제에 대해서 못 본채 한다면, 학생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 역시 보완책 수준이다.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조치는 정부의 지원을 통한 등록금 인하일테니까.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정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레기화)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총학·대학, ‘SPACE21’ 특별기구 설치

SPACE21 8가지 제안 합의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서울】총학생회(총학)가 제시한 ‘SPACE21 논의를 위한 8가지 제안’이 강의 수 조정과 관련된 1개 항목을 제외한 7개 항목에서 원안 그대로 대학 측과 지난 23일 합의됐다.

총학생회는 ▲특별기구를 설치해 구성원과 SPACE21에 대한 중요 사안을 논의한다 ▲기체 상환 계획을 1차적으로 특별기구에서 논의한다 ▲안전점검 실시와 결과 공개 후 필요한 부분은 개선, 보수한다 ▲강의수와 학생학습에 대한 제반 조건을 2015학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며 강의 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합의한다 ▲대운동장, 노천극장 사용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상업시설 유치를 지양하고 임대 매장 계약(연장) 시 학생 복지기구와 논의한다 ▲학생회관 내 새로운 복지 공간을 제공한다 ▲장애학생들의 이동안전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한다 등 모두 8가지 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

우선 SPACE21 사업 관련 현안을 다룰 ‘특별기구’가 설치된다. ‘특별기구’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자 1인, SPACE21 지원사업단 측 2인, 학생 및 학생 측 추천 인사 4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특별기구’에서는 SPACE21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소음 문제 등 민원접수와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논란이 됐던 서울캠 SPACE21 전체 사업 비용 800억 원 중 기체를 통해 마련하기로 한 500억 원에 대한 상환계획과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사업비용에 대해서도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이 특별기구에서 먼저 다룰 예정이다. 총학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기체를 통해 마련하기로 한 500억 원과 나머지 사업비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공기숙사 건설이 시급한 만큼 지체없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총학이 ‘SPACE21 논의를 위한 8가지 제안’을 대학본부에 제시했을 때 ‘강의수와 학생학습에 대한 제반 조건을 2015학년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에서 의견차가 발생했다. 대학본부 측은 ‘교양강의의 수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총학 측이 한균태 부총장과 논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강의 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합의’하



	제시안
1	교원, 직원 대표 각 1인, SPACE21 지원사업단 2인, 학생 및 학생 측 추천 인사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투명한 정보제공,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중요 사안 논의 등을 수행한다.
2	기체 상환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 1차적으로 특별기구에서 논의하고 2차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 구성원들과 논의한다.
3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물은 그 결과를 공개하고, 미실시한 건물은 안전점검을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 및 보수한다.
4	강의 수를 2015학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며, 실험 실습비, 도서관 및 학습 DB프로그램, 학생지원비 등 학생 학습에 대한 제반 조건도 2015학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단, 강의 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합의한다.
5	대운동장, 노천극장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학생활동(축구, 야구, 풍물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6	무분별한 상업시설 유치를 지양하고 신축 공간 및 기존 임대 매장 계약(연장) 시 총학생회, 생협학생위원회 등 학생 복지기구와 논의한다.
7	학생회관 내 새로운 복지 공간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총학생회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의 활용, 운영계획 등을 세우고 학교 측과 협의한다.
8	공사 기간 중 장애학생들의 이동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생회관과 네오르네상스관 등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기로 결정했다. 강 부회장은 “대형 강의가 늘어나면서 수업에서 불편함을 겪었다”며 “이제 학교가 학생의 동의 없이 강의 수를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8가지 제안 중 4번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 조항에 대해 그대로 수용했다. 대학본부 측은 “8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관련 부서장들과 부총장이 검토하여 합의했다”며 “학생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대학 자치공간 개선 공사 2학기 시작 전까지 마무리

정경대학 환경개선 진행상황

권윤지 기자 happitice2@khu.ac.kr

【서울】정경대학 낙후시설 개·보수, 동아리방·학회실 환경개선이 방학을 맞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4월 정경대학 학생회와 정경대학 측이 한군대 서울캠캠퍼스 부총장과 정경대학 강제상 학장, 정경대학 학생대표가 정경대학 건물 노후화와 낙후 기자재 관련 논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대학주보 제 1588호(2015.04.12.) 5면>

당시 정경대학 학생회는 ▲언론고시반 이전과 제2의 꿀방(학생회실) 만들기 ▲낙후시설 개·보수 ▲동아리방·학회실 환경개선 ▲강의실 대여시스템 개선 ▲정경대학 공간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강의실 대여시스템 개선은 지난 4월 1일부터 5개 강의실을 추가 대여할 수 있게 개선한 상태다. 이번 공사를 통해 8월부터 냉·난방이 가능한 에어컨과 이중창이 설치된 동아리방·학회실이 이용 가능하고 8월 중순에는 빔 프로젝트와 음

향시설 등 강의실에 있는 낙후된 기자재가 교체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강의실 대여 수요에 비해, 가능한 강의실 개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낙후된 기자재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한편,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위치한 까닭에 소음문제가 제기됐던 언론고시반에 대해서는, 아직 공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이전 계획은 없는 상태다. 다만 언론고시반의 물리적인 환경 변화보다는 당장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여건 보장을 위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음에 주력할 계획이다.

세미나와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제2의 꿀방(학생회실)만들기’는 현재 정경대학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으로 변경된 상태다.

정경대학 학생회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회장은 “정경대학은 꿀방과 같은 단독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면적 대비 공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매점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매점운영과 연계돼있는 경희대 생활협동조합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정경대학의 한 동아리방 내부

2015~2학기 취업스쿨 “취업과 사회진출 준비는 취업스쿨에서 책임진다”

	월	화	수	목	금
10:00 ~ 12:00		진로방해요인 이해 대상: 난역전로 결정을 못했 까? 내 인생에서 뭐가 더 중요 할까? 나한테 딱 맞는 길이 있 을까? Q.강의를 통해 알게 될 해답은? 아 이러한 이유들이 나를 괴롭 혀왔건	NGO, NPO 분야 강의소개: NPO·NGO 및 자구사민사회에 대한 기본 이해를 제공하고, 학생의관 심분야와 적성·인성에 맞 는 NPO·NGO와 실질적인 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코칭에 중점을 둔다.	건설, 플랜트 분야 강의소개: 건설, 플랜트산업 의 직무이해와 직무역량에 대한 분석, 건설, 플랜트 분야 의 채용트렌드 이해와 실전 준비 (자기소개서 인적성면접)	제1차 생명분야 강의소개: 제1차 생명산업, 직 무 및 직무역량을 이해하고 해 당 직무분야 입사를 위한 취업 전략을 수립한다. 호텔, 리조트 분야 강의소개: 호텔리조트산업, 직무 및 직무역량을 이해하고 해당 직무분야 입사를 위한 취 업전략을 수립한다.(현직 인사 담당자 외부특강 제공)
	멘토링과 함께 하는 커리어컨설팅 강의소개: 멘토링/점프 트루에에 대한 개념 확 립으로 커리어컨설팅에 대한 지식을 접대상하고 다양한 분야에 기여할 대 학생역량을 강화한다.	진로통기강화 대상: 다들 취업준비인데 나 도 이젠 스타트, 해야 할 건 많 은데 힘이 안나네... Q.강의를 통해 알게 될 해답 은? 왜 불안한 느끼고 제대로 준비를 안했는지 알겠네 원래서 취업준비해오지 않 게	진로적성탐색 대상: 수많은 직업들 중에 어 떤걸 해야 하지?, 어떤 직업 이 내 스타일이라니? Q.강의를 통해 알게 될 해답 은? 이러한 일을 해야 할 적성 은? 이것을 근거로 할 수 있구나	자이템색을 통한 진로설정 대상: 나는 누구일까? 어떤 일이 나와 가장 잘 맞 을까? Q.강의를 통해 알게 될 해답 은? 나의 성향을 가장 긍정 적으로 유지해 주고 항상 시 켜줄 수 있는 직업은 이거건	자기개발과 취업전략 강의소개: 학생들의 커리어 (진로) 선택과 취업 전략(정보 수집, 인터뷰 등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고, 과정을 통해 경력 목표 설정과 성공적 수행을 위 한 실행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4:00 ~ 16:00	진로정보탐색과 진로준비 대상: 직업에 대한 정보 는 어디서 찾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 를 해야 하나? Q.강의를 통해 알게 될 해답은? 이제 어떻게 준 비해야 하는지 알겠네	공무원, 고시 분야 강의소개: 공무원과 고시생 에게 대하여 여러 가지 길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준비방법 등을 소개한다.	금융·증권 분야 강의소개: 금융기관별 특징 과 직무/직무역량에 대한 분 석, 금융(증권)기관별 채용기 준 비교, 목표회사 취업을 위 한 실전준비(자기소개서 인 적성면접)	자의사업장을 통한 목표설정 대상: 과연 나의 선택이 맞 을까, 진로결정을 잘하고 싶 은데 어떡하지? Q.강의를 통해 알게 될 해답 은? 아하~ 이러한 이유들로 의 사결정이 어려웠구나!	취업실전 강의소개: 철저한 진로준비로 채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취업 및 진 로 준비지원
	세일즈 분야 강의소개: 세일즈맨의 핵심역량을 이해하고 이 를 육성하여 취업을 목표 로 하는 회사에 대한 직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스프츠 마케팅 분야 강의소개: 스포츠마케팅 분야 의 직무 및 직무역량 분석, 진 로 코칭을 통한 자기개발 계획 및 실행	IT 분야 강의소개: 서류전형부터 면 접까지 채용 프로세스에 대 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취업 준비생들이 채용절차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공학 분야 강의소개: 공학분야 취업 역 량 강화를 위한 필수 상식인 사자원서, 면접응답, 강의와 기 업 및 직업 분석에 대한 강의 가 제공된다.	금융·은행 분야 강의소개: 금융기관별 특징과 직무/직무역량에 대한 분석, 금융(은행)기관별 채용기(준 비)교를 통해 목표회사 취업을 위 한 자기개발 계획 수립

※ 취업강좌 수강신청: 수강신청일에 개설화를 기타 취업스쿨 취업관련강좌로 선택(문의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경희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안내

1.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https://khu.is.khu.ac.kr)에서는 교원의 급여연체, 연구업
적관리, 성적관리, 학생조회, 강좌관리 등이 가능하고, 학생의 인터넷 휴·
복학 신청, 예비군전입신고, 시간표/수강조회, 강의계획서 확인, 성적조
회, 장학신청, 등록금고지서 출력, 교육비 납입내역 조회, 학사일정 조회
등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스마트캠버스 앱 서비스

스마트 기기에서 대학의 주요 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통신사 제한 없이 안드로이드 및 iOS(애플)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
에서 ‘경희대학교’로 검색해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수강신청시스템 서비스(웹/모바일)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khu.ac.kr)에서는 종합시간표, 수강신
청, 개설학기 수강신청, 희망과목담기 등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에서도 수강신청 앱을 설치하면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경희대학교 수강신청’으로 검색해
설치하시면 됩니다.

4. 이메일 서비스

학생과 교직원들은 누구나 id@khu.ac.kr의 형태로 학교 메일 아이디를 가
질 수 있습니다. 웹메일 서비스(https://mail.khu.ac.kr)를 통해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일반적인 상용 웹메일 서비스와 같은 방식의 활용성이 높
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졸업/퇴직 후에도 이메일 계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경희인의 일체감 확립 및 동문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
습니다.

5. 홈페이지 지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사바에서 계정을 발급받아 개인별·개발 홈페이지
를 제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발급 기준은 부서 및 교수 용도의
업무용 계정과 학생용 계정으로 구분됩니다.

6. 온라인 백신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교내 PC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 프

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보지원처 홈페이지(http://ois.khu.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7.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재학생과 교직원은 ‘캠퍼스 라이선스’가 체결된 공용소프트웨어를 교
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보지원처 홈페이지(http://ois.khu.
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교육/행정용으로 필요한 소
프트웨어는 해당 대학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수강생에게 메일·문자 보내기 서비스

교수 또는 강사는 수업을 듣는 수강생에게 메일과 문자를 단체로 보낼
수 있습니다.

9. IP Address 및 Domain Name 신청

교내 전산망에 컴퓨터를 연결해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IP Address 및 Domain Name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인터넷 증명 발급

인터넷을 통해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
예정증명서, 휴학증명서, 교직이수증명서, 수료증명서, 교육비납입증
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 각 건물에 설치된
증명발급기를 이용하거나,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증명발급센터(http://
kyunghee.certpia.com)에 접속해 증명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11. 캠퍼스 무선랜(KH-Wi-Fi)

교내 전 건물 및 주요 외부 공간에서 노트북,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종합정보시
스템과 동일한 ID/Password로 접속 가능합니다.

12. 모바일 맞춤 통보서비스(경희 SMS 서비스)

교내 구성원들에게 휴대전화의 SMS(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3. 설문조사 시스템

행정부서(대학본부, 단과대학, 부속기관)의 경우, ‘대형 메일 및 설문 시
스템’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을 통해 자동 추출된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체계화된 분석도 가능합니다.

14. 소중환의견서비스

‘소중환의견’ 서비스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선의견이나 청탁/불편사
항에 대한 정보지원처와 사용자의 소통공간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에 접속 => [소중환의견] 메뉴에서 매뉴얼 의견등록이 가능합니다.

15. IT 콜센터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문의와 민원을 지원하기 위해 ‘IT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 기타

가. 이메일주소/휴대폰번호 등록 안내

각종 공지 및 긴급사항 연락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에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등록을 권장 드립니다. 등록 방법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 [개인정보]/교직원일 [My KHU]] - [개인정보변경] 메뉴에서
[E-mail]/[휴대폰] 항목에 각각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저
장]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나. 종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사용 안내

최초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로 되어 있으며, 처음 접속할 때 변
경하고 사용하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를 5회 이상 틀린 경우 일의 패
스워드로 변경되오니, [비밀번호찾기]에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새로
운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
소가 모두 변경되어 직접 전송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IT 콜센터로 연락하
시면 본인 확인 후 휴대폰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여 드립니다.

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본교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유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행위자도 처
벌을 받게 됩니다. 교내에서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지원처 홈페이지(http://ois.khu.ac.kr)에서 확인하
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E-mail(it@khu.ac.kr) 또는 IT 콜센터(서울 02-
961-0304,0521, 국제 031-201-3171~3)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정보지원처

보도

경영대학 학점평균 ‘B0 이하’ 맞춰

대학의 ‘성적평가 협조요청’ 공식시행하는 단과대학으로는 ‘처음’



경영대학 성적부여 논란
김도엽 기자 wogmd567@khu.ac.kr

【서울】경영대학이 2015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전공강의에 한해 학점평가를 B0 이하로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성적평가협조요청’을 단과대학 자체적으로 공식 시행한 것은 처음이다.

당시 교무처는 ‘성적평가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실험·실습 과목과 실기과정을 제외한 모든 강좌별 평균학점을 B0(평점 3.0) 또는 그 이하가 되도록 평가하라’는 내용을 각 단과대학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총학생회(총학)가 크게 반발해 결국 철회한 바 있다.(대학주보 1582호(2014.12.08.))

경영대학 이호창 학장은 “평균학점을 B0 이하로 맞추는 안은 지난해부터 단과대학 내 교수들과 논의를 거친 끝에 대부분 동의한 바 있다”며 “이를 학생회와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한 뒤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장은 “학점이 교수와 학생간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점문제를 가지고 교수가 학생들과 협상을 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진정한 교육의 질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학장은 이어 현재 경영대학은 강의의

〈경영대학 성적부여 현황〉			
구분	2014-1학기	2014-2학기	2015-1학기
영어강의 평균	3.18	3.22	3.04
부분 영어강의 평균	3.35	3.24	2.95
제2외국어 강의 평균	-	2.69	2.56
일반 강의 평균	3.09	3.09	2.95
총 강의 평균	3.18	3.15	2.97

출처 : 경영대학 제공

각 학점별로 비율을 정해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점별 비율을 정하고 여기에 추가해 학점평가를 3.0 이하로 맞추는 것이다”라며 “실제로 지난해 경영대학 학점 평균은 3.0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고 이번에 학점평가를 3.0 이하로 맞추겠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학점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학생들에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대학은 앞으로도 단과대학 자체로 학점평균 3.0 이하로 맞추는 안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대학이 채택한 이번 학점평균 제도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은 갈렸다. 경영대학 A 학생은 “실제로 우리학교가 외부에 학점인플레이션이 심한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평균을 B0로 맞춰서 줄일 필요가 있다”며 “학점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신의 노력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B학생은 “왜 학교 전체가 아닌 경영대학만 시행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학점평가를 맞추기 위해 A-정도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 B+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겨 학점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은 이번 성적 평가가 사전공지가 없었다는 점을 불만으로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신문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이 합의사항이 수강신청 이전에 공지됐다면 영어수업을 피해서 수강했을 것이다’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어떠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도 받지 못했다’ ‘기말고사 직전에 소문으로만 들었다’ 등의 의견이 게재됐다.

대학본부 “가이드라인 필요” 총학 “투명한 성적평가 기준 공개”

‘성적평가제도 개선 협의체’ 5차 회의
박기윤 기자 kyoond7230@khu.ac.kr

‘성적평가제도 개선 위한 협의체’(협의체) 제5차 회의가 지난 17일 진행됐다. 하지만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와 대학본부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도 대학본부는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학점평가를 B0(3.0) 이하로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캠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 황선경(정치외교학 2011) 위원장은 “성적을 수치화된 가이드라인에 가두는 것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투명한 성적평가 기준 공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에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성적 투명화 제도에 대한 의견은 좋지만 투명한 성적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이 안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강의 철학이 있는 교수들은 본인의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캠과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의 입장에도 온도차가 있었다. 국제캠 총학 이서영(식품생명공학 2012) 부회장은 “국

제캠의 경우 평균학점을 B0(3.0)으로 고정한다면 오히려 성적이 오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학기 서울캠 총학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서울캠에서만 실시한 반쪽짜리 설문조사라 공신력이 떨어진 다”며 “다음 학기에 양 캠퍼스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해 전체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대학이 단독으로 2015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전공강의에 한해 학점평가를 B0 이하로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서울캠 총학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지난 학기 평점을 B0(3.0)으로 고정한 경영대학의 경우, 회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독단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성적평가 방식은 바뀌었으나 장학금 제도는 기존 그대로여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성적제도를 바꾸는 것은 단과대학의 자율이라 대학본부에서 간섭하기 어렵다”며 “다만 장학금 문제는 학교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 6차 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황에서 결국 중재안이 도출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회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giveNgive

기쁜기부 캠페인

경희 기부천사파트너즈

경희라이언 일만인클럽

경희 라이언 서포터즈클럽

매그놀리아 스토리

후원의 집

 give@khu.ac.kr

 givekhu

 givekhu

 givekhu

 02-961-0932 031-201-3190

The World is a Global Village and the Peoples of the World are One Human Family. May We Strive for Peace and Humanity with the Spirit of Global Cooperation Society.



give.khu.ac.kr

산협단, “기술이전 수입 30억 원 이상 목표”

대학알리미 6월 공시 분석 ①

류제원 기자 jennyoo95@khu.ac.kr

2014학년도 우리학교 기술이전 계약건수가 총 42건, 수입료가 약 20억 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학년도에 비해 계약 건수가 14건 증가하고, 수입료도 약 7억 원 늘어났다.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지난달 30일 공개된 내용이다.

대학의 기술이전 계약은 ‘연구, 개발(R&D)’을 통해 취득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을 기업에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기술이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창출하고, 대학 역시 새로운 연구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학협력 중 대표적인 활동이다.

기술이전이 증가한 것에 대해 산학협력단 측은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와 산학협력단의 협업이 잘돼 거둔 성과”라며 “다른 대학에 비해 후발 주자인 만큼 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나해 우리학교 기술이전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HEVC/H.265’가 있다. 이 기술은 전자정보대학의 박광훈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것으로, 대용량 동영상 데이터를 압축



하는 코딩기술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고품질의 동영상을 매끄럽게 볼 수 있어,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이 기술은 국제 표준 특허로 등록돼 있고, 전 세계 모든 IT 관련 정보 가전에 필수로 탑재될 예정이다. 이 기술이전을 통해 이미 약 10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향후 20년간 기술사용료를 계

속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2014학년도 기술이전 수입료는 2013학년도보다는 증가했지만,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학년도 30억 6,400만원보다는 저조했다. 산학협력단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기술 마케팅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설명하며 “올해는 적극적인 기술 마케팅을 통해 30억원을 수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학교는 ‘대학 창의적 자

산 실용과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교육부에서 올해부터 3년간 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5억 원, 내년에는 10억 원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이런 지원금을 토대로 변리사 등 실용화 전담인력을 갖추고, 시제품 등을 제작할 계획이다. 산학협력단 측은 "향후 연구 진흥을 위한 재투자를 활발히 해 교수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많은 수의 특허 출원보다
널리 활용되는 것 더 기대”

인터뷰 - 박광훈 교수

방누리 기자 superior423@khu.ac.kr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전에서 보듯 특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학교 연구진의 특허출원 현황은 어떠할까. 국제캠퍼스 연구산학협력처에 의하면 2014년 기준 교내 특허출원 건 수에서 박광훈(컴퓨터공학) 교수가 국내외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 세계 표준의 날' 근정포장을 수상하기도 한 박 교수는 국제표준화의 선도자 역할에 힘쓰고 있다.

박광훈 교수의 주 연구 분야는 멀티미디어, 그 중에서도 동영상 압축하는 기술인 ‘코덱’이다. 그는 MPEG-2, MPEG-4, AVC/H.264를 시작으로, UHD 방송에 사용되는 영상압축표준인 HEVC/H.265에 이르기까지 동영상 코딩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관련 핵심기술을 채택시켰다. 그리고 이 기술은 현재 스마트폰이나 TV, 디지털 카메라 등에 탑재돼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박 교수는 최다 특허출원 보유
자란 말에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다”면서도 “하지만 특허 등록
과 출원 건수가 많다는 이
야기보다는 내가 만든
기술이 전 세계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Killer Application)
으로 널리 활용된다
는 말을 더 듣고 싶다”
고 말했다.

그가 지금까지 괄목
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동력은 무
엇일까. 박 교수

는 그 첫 번째 비결을 ‘재미’로 꼽았다. 연구를 하다보면 대인관계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재미있으면 고단함도 잊은 채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박 교수는 대학원생을 뽑을 때 ‘게임하느라 밤샘 적 있는가’를 묻곤 하는데, ‘며칠 밤을 새가며 게임을 하는 사람은 재미를 붙이든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며 “연구자에게는 이런 ‘근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박 교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특별한 방법으로는 “문제가 되는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머릿속에 뜬구름만 잡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특허출원을 위한 연구가 쉬운 길은 아니었다. 하지만 박 교수는 “하고 싶은 것, 흥미 있는 일을 하고 산 덕분엔 결과도 좋은 것 같다”고 회상했다. 앞으로의 연구계획도 복잡하지 않다. 그저 “재미있으면 계속 하겠다”고 한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온 그의 20년 세월이 느껴졌다. 롤프 메르쿨레의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오르게 하는 박광
훈 교수의 앞으
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강사 강의료 평균 4만 9,950원, 사립대학 평균보다 낮아

대학알리미 6월 공시 분석 ②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2015학년도 우리학교 '시간당 강사 강의로 평균'이 4만 9,950원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만 693원과 비교할 때 약 700원 줄었다.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 평균 5만 5,100원 보다는 5,150원 낮았고, 사립대학 평균 5만 600원 보다는 적었다.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지난달 30일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기존에 우리학교의 시간당 강사 강의료의 지급기준 단가는 최저 4만 1,000원에서 최고 5만 1,000원으로 총 2가지로 구분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 2만 550원에서부터 최고 7만 6,500원까지 총 6가지로 세분화됐다.

이중 5만 1,000원을 강의료로 받는 시간강사가 90.1%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같은 금액을 강의료로 받은 시간강사가 총 94.8%였던 것과 비교할 때 4.7%p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강의료로 4만 1,000원을 받던 시간강사가 5.2%, 올해도 5.2%인 반면, 2만

기존	비율	2015학년도 신규	비율
4만 1,000원	5.2%	2만 5,500원	4%
		4만 1,000원	5.2%
		5만원	0.1%
4만 1,000원	94.8%	5만 1,000원	90.1%
		5만 1,500원	0.1%
		7만 6,500원	0.4%

550원을 받는 시간강사가 4.0%로 새롭게 늘었다. 이런 강의료 세분화의 결과 평균 강의료 역시 줄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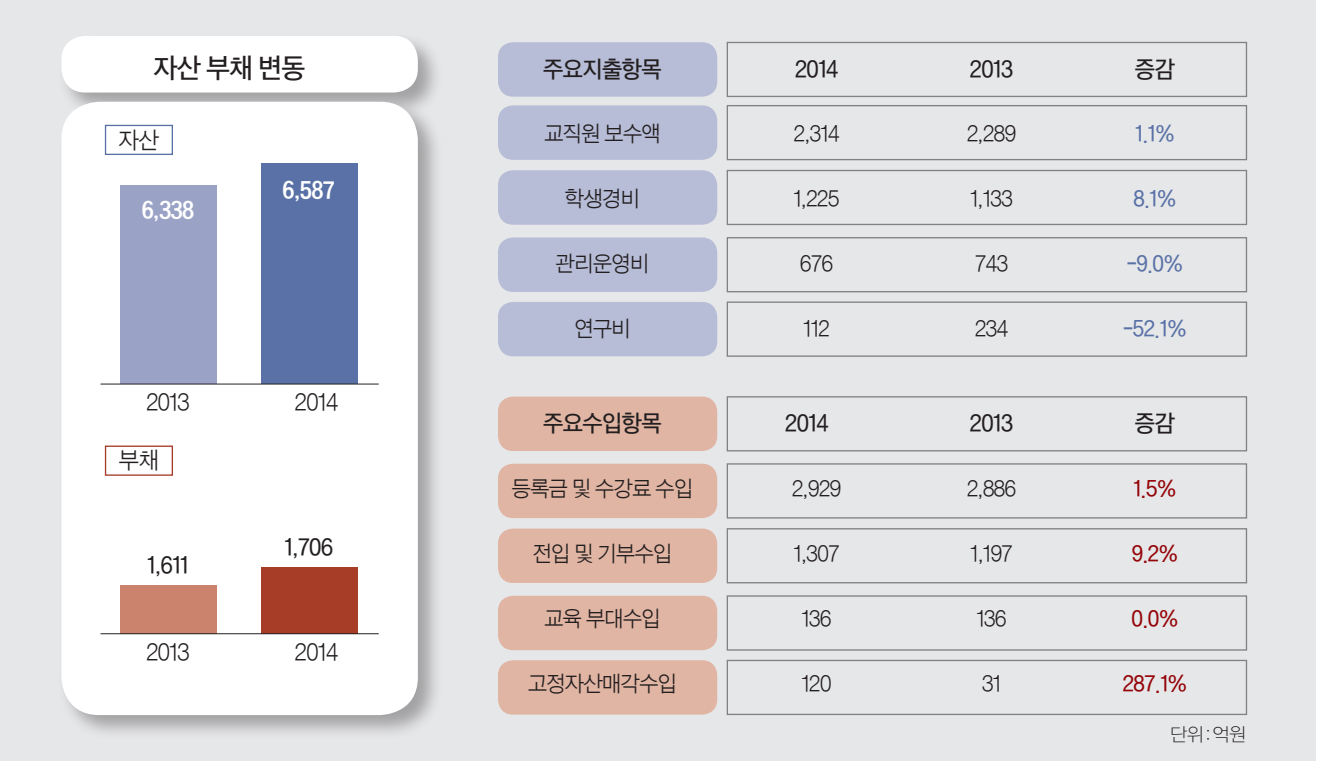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시간강사 강의담당비율은 3년 동안 하락세다.

[illegible]

보도

2014학년도 결산공고, 134억 원 ‘흑자’ 운영비, 연구비 삭감 등은 고민거리



2014학년도 결산공고 분석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2014학년도 자금계산서에 따르면 우리 학교의 수익구조가 외견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현금 유출입을 토대로 재정 상황을 바라본 ‘자금계산서’에 따르면 ‘순수 수입액’이 4,551억 원, ‘순수 지출액’이 4,417억 원을 기록해 134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3학년도 ‘순수 수입액’ 4,280억 원에 ‘순수 지출액’ 4,461억 원을 기록해 181억 원 적자가 났던 상황이 개선된 셈이다. 순수 수입액은 총 수입액에서 기금인출수입, 차입금 등을 제외하고, 순수 지출액은 총 지출 중 기금적립금을 제외한 것이다.

또한 결산공고를 살펴보면 우리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2013학년도 6,338억 원에서 2014학년도 6,587억 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부채 역시 1,611억 원에서 1,706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산의 세부내역 중 고정자산은 3,791억 원으로 전년대비 52억 원이 줄었고, 반대로 1년 이내에 환급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 자산이 1,531억 원으로 93억 원 증가했다. 특히 투자자산의 경우 2013년 7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4학년도 30억 원으로 늘었

다. 적립금의 경우도 같은 기간 948억 원에서 1,146억 원으로 약 20% 증가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고정자산매각수입이 증가세인 점이다. 2013학년도 31억 원에 불과했던 이 항목은 2014학년도 120억 원으로 급증했다. 재무처 재무회계팀 김유경계장은 “국제캠퍼스 내 4개 필지의 토지매각에 따른 자산매각의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체 수입액의 경우 4,552억 원으로 전년대비 240억 원(5.5%) 증가했다. 2013학년도 2,886억 원이었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이 2014학년도 2,929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기부금 수입 역시 약 100억 원에서 167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입금 수입의 경우 638억 원으로 작년 637억 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지출의 경우 교직원 보수액과 학생경비가 각각 작년대비 25억 원, 학생경비 92억 원이 증가했으나 관리운영비 67억 원, 연구비 122억 원이 감소해 총 운영비용합계는 4,455억 원으로 2013년 4518억 원 대비 소폭(1.4%) 운용비용을 줄였다. 하지만 적립금 인출·적립 등을 감안한 총 비용합계는 4,652억 원으로 이를 반영한 운영계산서 상의 2014학년도 당기운영차액은 100억 원 적자로 전 학년도 150억 원에서 개선됐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재무처 재무회계

팀 박성구 직원은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매 회계연도마다 비용처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직원은 감가상각비에 대해 “이 비용은 직접적인 현금지출이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학교 건물과 구축물의 감가상각비용으로 잡히는 비용 109억 원은 운영차액손실액인 100억 원과 비슷한 액수다.

이처럼 결산안 지표상 재정상황은 양호해졌지만, 결국 재정수입구조가 달라지지 않고 있고 연구비 등이 대폭 삭감된 만큼 추가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금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두 계산서 모두 회계연도 기간 내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자료다. 다만 ‘자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의 유출입’만을 기준으로 나타내 보여준다. 예컨대 ‘운영계산서’의 경우에는 건물이 노후화 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 형태로 매년 계산을 하지만 ‘자금계산서’의 경우 건물보수비용으로 지출할 때까지 건물노후에 관한 비용은 계산하지 않는다.

문화복지시설 2개 업체 할인 중단 GS리테일, “강제할 수 없다”

할인혜택 중단 논란

박기윤 기자 kyoon7230@khu.ac.kr

‘경희의료원 전면플라자 문화복지시설’(문화복지시설) 입점 업체가 제공해온 ‘할인’ 혜택이 일부 업체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시행해왔던 업체 중 일부는 할인 혜택을 이미 철회한 상태다. 할인 혜택은 문화복지시설이 지난 5월 11일 공식 개관될 당시,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면 음식 가격의 5~10%를 할인해주기로 약속한 것을 말한다.

문화복지시설 개관과 함께 할인 혜택을 시행해온 업체는 전체 16개 업체 중 14개(조건부, 일부 상품 포함) 업체였다. 하지만 이들 업체 중 ‘한촌설령탕’과 ‘비틀주스’는 이벤트 기간이 끝났거나 업체 내부 사정으로 할인 혜택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양장선 운영팀 직원은 “당초 약속했던 할인 혜택을 지키기 위해 업체를 찾아다니며 구성원 대상 할인을 유지해달라 설득했다”면서도

“GS리테일은 입점 업체에 할인을 강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해 이같은 혜택이 계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나아가 “예상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업체마다 수입이 급감하고 특히 ‘한촌설령탕’의 경우 문화복지시설 내 다른 업체보다 원재료 가격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와 방학 시즌이 겹쳐 실질적인 수입이 감소해서 할인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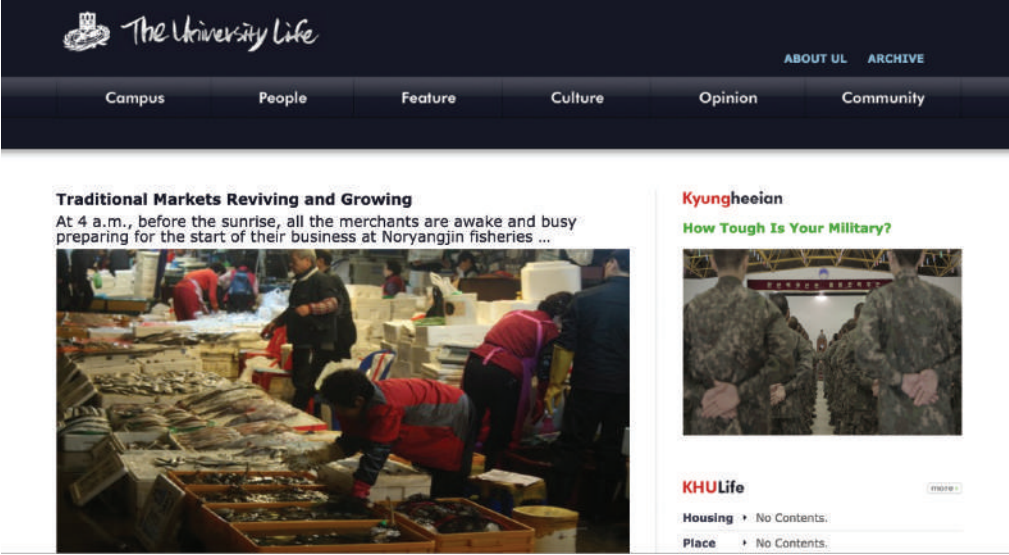
이같은 상황이라면 현재 할인 정책을 중단한 2개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할인 혜택을 철회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여의치는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양 직원은 “방학이 끝나고 메르스 여파가 지나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할인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GS리테일측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현재 문화복지시설이 과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안정이 될 때까지 지켜봐 주면 이용객들이 만족스러워 할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입점업체 할인혜택 시행현황〉			
위치	업체명	당초 할인혜택 시행여부	현재 할인혜택 시행여부
B1	기소야	O	O
	한촌설령탕	O	7월 6일부터 중단
	분애티	당분간 휴업	
	천하제면소	O	O
1F	GS25	X	X
	바비박스	입점 당시 가격 조정	
	로봇김밥	O	O
	망고식스	O	O
	공차	X	X
	비틀주스	O	X
	까페카우아이	O	O(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가능)
2F	글라스스토리	O	O(조건부)
	스테프핫도그	O	O
	빅스	O	O
	명가교동짬뽕	O	O
3F	라운지디	O	O

교내 한국인,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한 소식을 세계 곳곳에 전해드립니다. 유학생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비롯한 학내 이슈를 발로 뛰며 취재합니다. 또한 교환학생과 해외자매대학의 관련 소식을 전하며 경희대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잡지는 양 캠퍼스에 총 3,000부 배포되며 140여 개의 해외자매대학으로도 발송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영어신문사로 거듭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yung Hee University by providing space in which comunication takes place among each other in English.”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 for improving the magazine, please, contact us on unilife@khu.ac.kr

경희대학교 영어신문사 The University Life



젊은 세대들이 왜 ‘복고 문화’에 끌리는가

특별기고 - 복고열풍

서상훈
문화평론가



‘예전이 좋았다’는 말이 있다. 내가 어릴 적, 젊을 적, 잘나갈 적이 좋았었다는 그리움이다. 일반적으로 그 ‘좋았던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맛닥뜨리는 ‘오늘’의 현실은 점점 엄혹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작금의 대중문화가 복고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현대 한국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한 일종의 방증일 수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일류대, 돈, 인격 상실, 이런 단어들로 팽배한 엄혹한 사회다. 수많은 대학생들은 무사히 졸업을 하기 위해 재학 중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졸업 후에는 마땅한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 전쟁을 치러내야 한다. 가까스로 취직을 하더라도, 집 사기가 별 따기보다 어려운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가족이기주의와 배금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고된 현실은 젊은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1970년대부터 20여 년 간은 사회 순응형 모범생이라면 성공할 수 있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희망이라는 비전은 사라지고 삭막해진 정신과 물질만능주의가 남은 시대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나와 내 가족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가족이기주의와 배금주의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황폐해진 사회에서 한국인에게 정감과 성취감이 남아있던 예전이 ‘좋았던 시절’로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만일 일반 대중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어떤 공통된 욕망을 대중문화가 대리만족시켜줄 수 있다면, 그 아이템은 사회 일반의 반향을 이끌어내어 주류적 열풍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렇다면 ‘복고열풍’이 가리키는 우리의 옛날은 어떠했는가. 정



치적 가치판단을 배제했을 때, 우리의 과거는 성장 일변도의 과거였다. 197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로 한국사회는 수많은 성장을 경험했다. 대학생 정도의 학력이면 와달라는 기업이 줄을 서던 시대, (지금에 비해) 약간의 노력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던 시대, 그리고 그렇게 집의 가치가 매 해가 다르게 경충경충 뛰어오르던 시대, 그것이 그 옛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다. 오늘날 대중이 문화를 통해 추억하는 ‘복고’의 감성에는, 그 시절의 성공과 그 시절의 성장과 그 시절의 안락함이 진하게 배어 들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 그 좋았던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도성장’ 자체가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사례가 드문,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의 향수에 취해 대중문화 속의 복고열풍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자칫 다디단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절망감과 회의감 속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문화소비자로서의 대중이, 특히 청년들이, 이 ‘복고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작금의 대중문화’를 어떻게 소비하는냐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멍하니 앉아 과거의 영광에 취해드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문화소비자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먼저, 우리는 이 복고열풍 속에서 지금 대중 일반이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 다시 말해 우리들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 미국 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예술가 지망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예술가는 항상 불안한 직업입니다. 예술가가 되었다면, 당신은 똥(패배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술가에게는 항상 다음(Next)이 있습니다. 패배하면 다시 또 도전하고 다음, 다음을 외치세요.”

‘복고 열풍’을 통해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사회 현상을 보며 나의 유토피아적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확인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다.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의 복고열풍 역시, ‘나’의 목표를 찾고 세워가는데 유용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옛 ‘고도성장기’의 그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단적으로, 오늘날의 이 엄혹한 사회 자체가 바로 그 그늘이다. 끝없는 것 같던 성공과 성장과 안락함 속에서 과거의 우리는 많은 정신적인 부분들을 놓쳐왔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거치는 동안 승자도 패자도 마음 속에 심한 상처 한 줄쯤은 모두 갖게 된 사회, 그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다. 이것을 상기하면, 오늘의 삭막한 현

실을 극복하기 위해 무언가 억눌린 자세로 죽도록 일만 하며 사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매일,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여유를 품고 소소하게 스미는 감정과 풍경과 관계들을 돌아보며 그것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아마도 오늘의 삭막함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돌아켜보면 오늘날의 대중이 복고 코드에 감정이입을 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성공과 성장’이라는 결과가 그리워서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서 진짜 그리워하는 것은 그 성공과 성장 사이에 틈틈이 새겨져있던 ‘나’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겠는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사이의 간극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부분이 불행해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기 마련이다. 중국적인 목표는 물론이거니와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 중에도 ‘나’의 행복이 유예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지금의 나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삶의 모습에 더 가까울 것이다.

모쪼록, 이 엄혹한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대학생들이,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구체적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런 당신들이 만들 미래의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이 가득한 사회이기를 바라면서.

참여마당

이정민
스페인어학(2014)



담론이 없는 곳에는 민주주의도 없다

지난 6월 서울캠퍼스를 다녀왔다. 정운관에는 총여학생회의 존재이유를 묻는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총여학생회의 대자보가 학우의 물음에 답을 하고 있었다. 내친김에 고려대학교도 들렀다. 입구에서부터 곳곳에 대자보가 붙어있었다. 학생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또 그에 대해 사과하는 목소리, 학교를 향해 부당함을 외치는 목소리, 약자들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다양한 목소리가 대자보에 담겨 있었다.

흔히 대학가에는 특정 사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담론이 형성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담론장으로서 대자보는 오랫동안 그 역할을 다해왔다. 만약 해당 대학의 뜨거운 감자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학내에 붙어있는 대자보를 찾아보면 될 정도다.

그러나 필자가 1년 6개월 간 국제캠퍼스에서 생활하면서 대자보를 본 건 단 한번 뿐이었다. 국제캠퍼스에 생협이 없다는 내용의 대자보였는데, 이것조차 학내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렇다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제캠퍼스가 ‘평화롭게’만 지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진KHU’ 선본은 학생총투표를 통해 ‘한국대학생연합’을 탈퇴를 결정했다. 이 학생총투표에서 투표 문항이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여론화되지 못하고 급방 사라졌다. 대외적으로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위해 우리학교는 ‘학점평균을 B0로 맞추겠다’는 학교의 방침에도 목소리를 내는 학우는 없었다.

담론의 장이 형성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우리들의 권리를 더 보장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단순히 ‘대자보가 없다’나 ‘대자보를 붙일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학생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담론의 장’이 없었던 것이 참 아쉬웠다. 물론 요즘 ‘자기개발’만 하기도 개인에게는 벅차고 바쁜 시대다. 그동안 필자도 어느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무관심했음을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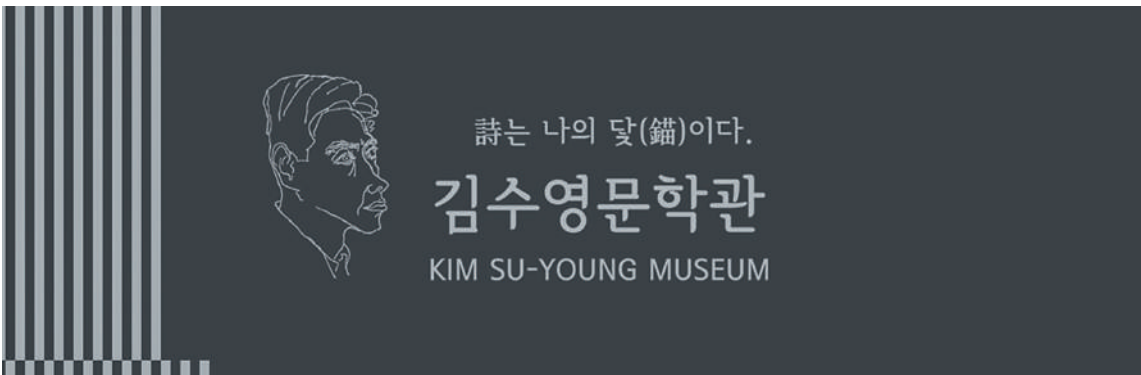
학내외에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쉽지 않을지라도, 그래야 한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세력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플라톤의 말의 말은 그래야 하는 수많은 이유로 꼽을 수 있겠다. 필자는 담론형성을 통한 논의를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반대로 담론이 없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는 힘을 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마땅히 나의 의견을 가져야 할 일들에 의견을 가지며, 사안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가 됐으면 한다. 사안에 대해 함께 나누고 토의하는 담론의 장이 형성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우리들의 권리를 더 보장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1면에서 이어짐

예술가의 표현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인간이 가진 꿈과 감정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김수영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절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에 발굴된 김수영의 미발표 원고를 보면 심지어 ‘김일성만세’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시작된다고 썼다. 4·19 혁명 직후 쓴 그 시는 지금의 독자들에게도 충격적이다. 그가 꿈꾼 절대적 자유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분단시대의 새장 속에 갇힌 새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있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사회규범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지식인이다. 그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물론이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고민했다. 그는 일체의 타협이나 위선을 배격하고 극단적인 정도로 정직성을 추구했다. 이러한 자세는 한국과 같이 사회역사적 격변



예술가의 표현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인간이 가진 꿈과 감정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 심한 나라에선 매우 불리하고 때로는 위험한 처신 방법이다. 하지만 김수영은 그러한 불리와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과 정의의 위해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사실을 정직하게 전달하고 옳고 그름을 전후좌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하는 것, 이 기본적인 기능이 말살되어 있는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다. 그런 사회를 향해 “시여 침을 뱉어라”고 그는 절규했고 “시는 온몸으로 온몸을 밟고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예술이 아름다운 것만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김수영의 이러한 태도는 충격이었

고 그 충격은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신선하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진정한 삶의 길을 찾아가는 내면적 기율을 지킨 스승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드물다. 그런 정신적 스승을 갈구하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김수영은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뚜렷한 이정표이자 정신적 멘토이다.

세상의 위협에 주눅 들은 젊은이들에게 당당한 호연지기를 주는 글이 김수영의 시와 산문이다. 젊은이여, 궤퇴죄한 늙은이들을 멀리하고 김수영을 읽으라.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①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광고기획 및 제작 킷로그 포스터 부동산전단
신문제작 대학학보 구청소식지 사보출판 간행물 제작CI·BI

☎ 751-5939

스포츠

럭비부, 천적 고려대 꺾고 트로피 들었다

대통령기우승

박지혜 객원기자 snaier91@khu.ac.kr

쪼박 14년만이었다. 럭비부가 지난 22일 ‘제26회 대통령기 전국 중별 럭비 선수권대회(대통령기)’ 결승전에서 고려대를 34-20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11년 이후로 최근 4년간 고려대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기에 더욱 뜻 깊은 우승이었다.

특히 대통령기 우승은 럭비부 박용돈(체육학 1999) 코치가 재학 중이던 2001년이 마지막이었다. 코치로서 처음으로 우승한 박용돈 코치는 “모교에 코치로 부임한 지 3년 만에 거머쥔 첫 우승이어서 더욱 기쁘다”라며 “다음 대회인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대학부에는 ‘2015 코리안럭비리그’ 1차전에서 상위성적을 거둔 4팀(고려대, 경희대, 단국대, 연세대)가 참가하기로 결정했으나, 단국대가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세 팀만 참가했다. 우리 학교는 부전승으로 결승에 직행해 연세대를 이기고 올라온 고려대를 상대하게 됐다. 고려대는 명실상부 현 대학 럭비 최강자로서 2015년 들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다. 고려대와의 경기는 지난 4월 11일 ‘2015 코리안 럭비리그’ 1차전에서 26-34로 석패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경기 시작은 순조로웠다. 전반 5분 주장 한상훈(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의 페널티킥 성공으로 선취점을 낸 데 이어 10분에는 트라이까지 성공시키며 8:0으로 앞서갔다. 그러나 잇따라 고려대에게 트라이와 페널티킥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재역전의 기회를 틈틈이 노렸으나 촉박한 시간 탓에 결국 8-15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경희의 드라마는 후반전부터였다. 초반 고려대 김승선이 10분간 퇴장을 당하며 수적으로 유리해진 상황이었다. 여세를 몰아 전반 9분 허재준(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와 전반 19분 박명우(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가 연달아 트라이를 성공, 20-15를 만들며 역전에 성공했다.

포워드와 백스의 호흡이 특히 눈에 띄었다. 지난 2015 코리안 럭비리그에서 다소 맞지 않는 호흡을 보이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포워드의 픽앤고(Pick and Go) 전략이 적중했고, 힘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백스의 활약 또한 그에 뒤지



* 럭비의 득점

- 트라이 : 상대방 골라인 바깥쪽까지 공을 갖고 가서 바닥에 찍는 것, 5점
- 컨버전 골 : 트라이 성공 시 추가 킥 기회가 생긴다. 이 때 공을 차서 득점하는 것, 2점
- 드롭 골 : 경기 중 공을 차서 득점하는 것, 3점
- 페널티 골 : 상대팀이 반칙을 하면 반칙당한 위치에서 공을 차서 득점하는 것, 3점



지 않았다. 평소 고려대 백스의 스피드에 맥을 못 추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20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던 경기 중반, 우리 학교 인 골(In goal) 코앞까지 돌파를 허용하며 자칫 역전을 당할 뻔한 상황에서 한상훈과 교체되어 들어온 한동훈(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가 몸을 날린 강력한 태클로 득점을 저지했다. 가히 이날의 최고 명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트라이 세이빙 태클(Try saving tackles)이었다.

이후 이진용(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와 허준수(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가 연속해서 성공시킨 트라이와 컨버전킥으로 14점을 더 보태며 최종 점수 34-20으로 우승의 축포를 쏘아올렸다. 럭비부는 짧은 휴식을 가진 뒤 일본 류가사키로 전지훈련을 떠나 일본 유통경제대학 럭비부와 연습 경기를 가지는 등 10월에 있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매진할 예정이다. 이하 한상훈 주장과의 일문일답.

- 우승을 축하드린다. 어떤 마음으로 결승전에 임했나?

“결승을 앞두고 훈련이 유독 더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려대보다 많이 밀리는 걸 알고 있었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든 좁히기 위해 훈련과 노력을 몇 배로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한편으론 엔돌핀 때문인지 묘한 흥분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우승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직전 선수들에게 ‘미친게 처럼 뛰어다니자’라고 했다.(웃음) 이 날은 말 그대로 재미있게 경기를 뛰었다. 선수들 모두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뿌듯하기도 했고, 이번 대회에선 단합이 정말 잘 됐다. 서로간의 믿음과 단합이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

- 고려대에게 승리한 것이 4년만이다. 주장으로서 감회가 더 남다를 것 같은데.
“고등학생 때는 우승도 많이 경험했었는

데, 입학한 후에는 연세대와 고려대에 번번이 패배해서 우승한 적이 없었다. 나뿐 아니라 동기들 모두 졸업하기 전에 두 학교에 승리하는 것이 작은 소망 같은 것이었다.

경기가 끝나고 우승이 확정됐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또 주장 직을 맡게 된 때 승리를 거두게 돼서 기쁨이 더욱 크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 선수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힘든 운동을 불평 한마디 없이 나를 믿고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다. 어느덧 주장을 맡게 된 지도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많이 서투르다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 더 좋은 주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만간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열심히 담금질하고 돌아와 10월에 있을 전국체전 때는 더 놀라게 해드릴 것이다.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총 11개 메달 획득

우리학교 출전선수 메달 결과

장연수 기자 ys0501994@khu.ac.kr

지난 14일 막을 내린 제28회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우리학교 선수들이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개 등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대학생 종합 운동경기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43개 국가에서 1만 3,000여 명이 참가했다.

우리학교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낸 종목은 단연 태권도였다. 단체전에서 금메달 4개, 개인전에서 은메달 2개를 얻었다. 특히 품새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지은(태권도학 2012) 선수는 여자 단체 품새에서, 장세훈(태권도학 2009) 선수는 남자 단체 품새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재희(태권도학 2012) 선수는 혼성 단체 품새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현승(태권도학 2013) 선수는 태권도 경기의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에 나이지리아와의 경기에서 남자 단체 겨루기 종목 금메달을 거뒀다.

2016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한화의 1차 지명을 받은 김주현(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가 참가한 야구는 준결승에서 대만과 붙었지만 2:0으로 아쉽게 동메달을 얻는 것에서 그쳤다. 그러나 양궁과 기계체조에서는 각각 기보배 선수와 양학선 선수와 합심하여 단체전 은메달을 거머쥔 데 성공했다. 강채영(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는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조영광(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는 기계체조 남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강 선수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곧 있을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더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니버시아드 경기 일정이 거의 막바지였던 13일, 대한민국 남자 축구 팀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우리학교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종합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메달	이름
금(4)	김현승 이재희 최지은 장세훈
은(6)	강채영 고승범 김빛나 류대환 유현지 조영광
동(1)	김주현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